

장흥읍, 우체국 집배원과 복지사각 발굴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장 백형갑, 공동위원장 강경일)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체국 공익재단과 협업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체국공익재단은 지역별 우체국 집배원 등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게 된다.

우체국공익재단에 지원금 신청·지원 시스템 긴급 생활안정지원비·주거환경개선비 지원

의 사례회의 등을 거쳐 우체국공익재단으로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금을 신청,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교촌리에 거주하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 이모씨(41세)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폐암을 앓고 있는 모친의 간병을 도맡아 하느라 우울증까지 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우체국 집배원의 관심으로 민관의 여러기관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열었다. 우체국공익재단 사업비 신청을 진행하여 김씨를 포함한 총 5가구에 생활안정지원비와 주거환경개선비 700만원이 결정되었다.

백대진 장흥우체국장은 "각종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의 이웃들이 많아 가슴아프다."며 우리 지역을 위해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우체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형갑 읍장은 "우체국 집배원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고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장흥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개인의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군장병들이 해변으로 몰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여수시, 태풍영향 물려온 해양쓰레기 수거 '분주'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지나간 4일 여수 곳곳은 물려온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느라 분주했다. 여수시 민력동은 지난 4일 개장을 앞둔 만성리 해수욕장다 모사금 피서지에서 대대적인 정결활동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정결활동에는 오전어촌계 주민과 7391부대대대 군장병,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만성리 해수욕장과 모사금 피서지는 몇 일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폐목재, 페스티로폼 등이 방치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8시간여 동안 작업을 실시해 해양쓰레기 10여 톤을 수거했다. 민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민력동 체육회는 참여자들에게 생수와 간식을 제공하며 힘을 보탤었다. 같은 날 돌산읍도 무술목 피서지로 유입된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무술목 변영회원과 주민, 공무원

등 50여 명은 이날 피서지로 유입된 폐어구, 페스티로폼, 생활폐기물 등 5톤 상당을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이어 굴진마을 일대에서 주민들이 해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방역소독 작업도 실시했다. 화양면과 남면은 5일 오전 각각 장동 해수욕장과 안도 해수욕장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벌였다. 이창선 민력동장은 "7391부대대대 군장병과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생, 오전어촌계 주민들의 도움으로 해양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김명희 돌산읍장은 "비쁜 영농철 정결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신 변영회원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적극 협력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여수지역 5개 해수욕장과 3개 피서지는 오는 7일 일제히 개장한다. 개장기간은 8월 19일까지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 보길도로 바지락 캐고 힐링하러 떠나자"

보길면 여항리 12~13일 바지락 캐기 체험행사

완도군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보길면 여항리에서 바지락 캐기 체험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항리 부녀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올해로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항리 인근에는 종리 해수욕장과 통리 해수욕장이 있어 바지락 캐기 체험 후에는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많은 관광객

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길 여항리 바지락은 갯벌보다 황토와 자갈이 많은 목섬 앞 호안에서 서식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바지락보다 맛이 뛰어나다. 특히, 자연 번식을 통해 자라고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일조량이 풍부해 알맹이가 알차다. 체험 참가비는 큰 바구니 2만원, 작은 바구니 1만원이며, 바지락을 캐는 호미는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보길면 여항리 부녀회장(010-6659-6582)에 게로 문의하면 된다. 체험행사에 서는 바

지락 뿐만 아니라 각종 해산물도 캐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여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석 보길면장은 "여항리 부녀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체험행사를 즐겼으면 한다"며 "체험 행사 후에는 보길도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힐링하고 가세요"라고 밝혔다. 보길도는 섬속의 낙원인 고산 운산도 원림, 예송리 갯벌 해변, 망골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매력적인 섬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갯벌·해안 등 관광자원 개발 '날개'

국토부 사업 선정 국비 3억 확보

무안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관광지원 개발에 날개를 달게 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실행계획' 수립용역 공모에 목포시, 나주시, 신안군과 연계한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 사업'과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 2건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명품 경관 육성 프로젝트'는 총 9,5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안과 목포 신안을 잇는 해안 경관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도·농로 등을 활용한 '경관 샛길' 조성과 자전거·도보 탐방로인 '무동력 길' 명소 개발 등이 포함됐다. '호남선 남행열차 사업'은 호남선 철도를 따라 이어지는 나주~무안~목포 구간을 따라 기차역과 인근마을을 개발하고, 테마 관광열차를 도입해 연계통합형 지역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정 사업비는 120여억 원이다. 특히 위 사업들은 민선7기 김산 군수의 관광분야 주요 공약사항인 해안도로 개설 및 거점 관광단지 조성, 갯벌 자원화 사업 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진도군, 보배섬 SNS 서포터즈 공개 모집

오는 19일까지

진도군이 제1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관심과 열정으로 뛰는 SNS 홍보대사로 보배섬 진도군의 독특한 매력을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 줄 '제1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를 30여명 내외로 모집한다. 대상은 지역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사진·동영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된다. 진도군청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24일(화) 발표한다. 군은 SNS 서포터즈에게 게시물에 대한 원고료와 우수 게시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